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7 호 2009년 2월 24일

##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NEWSLETTER



### 1. 2월 24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09년 연차 총회 안내

일 시: 2월 24일 화요일 11:30-13:3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참석대상: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대표 외 2명)

2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차 총회가 열립니다. 본 총회는 UNGC 한국협회 CEO가 모이는 거의 유일한 오찬 행사입니다. 총회에서는 2008년 결산안, 2009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 협회의 중요한 사안들이 보고되며 정관 및 이사, 감사진 변경을 위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내 CSR 분야의 권위자이신 안병훈 카이스트 부총장 및 경영대학원원장께서 연사로 초청되어 “글로벌 위기 시대에 한국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CEO 분들 모두 참석 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 연주와 함께 오찬이 제공될 것입니다. CEO/CEO 대행 외에 두 분 더 참석하실 수 있으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 3월 17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CEO Club 조찬회 안내

일 시: 3월 17일 화요일 07:00-08:15  
장 소: 서울 플라자 호텔  
참석대상: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CEO

3월 17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1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CEO Club 조찬회가 열립니다. 조찬회에는 웨일즈 왕자 국제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IBLF)의 CEO 애덤 리치(Adam Leach)가 연사로 초청될 예정입니다. IBLF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CSR 단체로 지난 15년 간 세계 90여 국 100개가 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섹터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IBLF의 CEO인 애덤 리치는 MBA를 졸업한 후, 국제빈곤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의 지역 디렉터로 활동하며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지역 등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권위자들의 세계적인 안목은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CEO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3. 4월 1일 환경 심포지움 개최 안내

4월 1일 수요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엑스에서 환경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추후공지). 2009년은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협약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 15,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12월 7일-18일)가 열리는 해입니다. 기업들도 지구온난화라는 세계적인 화두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체제와 규범에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협조 하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계 비즈니스 정상회의 (World Business Summit on Climate Change)를 열어, 기후변화위기를 기업의 성장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친환경경영, 환경투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리더십을 발휘한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될 것이며 정부가 기업의 그린 비즈니스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 4. 4월 22-23일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 안내

**일 시:** 4월 22-23일  
**장 소:** 프랑스 파리 빨레 데 콩그레 (Palais des Congres) 컨벤션 센터  
**참석대상:** 세계 정상급의 CEO와 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 특별게스트, 그 외에는 별도 등록.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환경을 위한 비즈니스' 세계 정상회담이 4월 22일부터 23일 양일 간 프랑스 파리 빨레 데 콩그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 당면한 환경의 도전을 중점 부각하고 기업의 환경 책임에 대한 전략과 최선의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본 행사의 목적입니다. 세계 선도 기업의 CEO 및 고위 임원진이 참석하여 정부, 국제기구, NGO의 대표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자원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새 비즈니스 모델, 기후정책 및 전략 등 녹색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슈들이 회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기조연설이 있을 것이고,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도 토의에 참가합니다.

회담 첫 날인 4월 22일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부 장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영상), 아킴 스테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게오르그 켈 유엔글로벌콤팩트 대표의 오프닝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 찰스 호슨 CNN 앵커, 브라이언 월쉬 Times 지 편집장 등 쟁쟁한 언론계 인사들의 사회로 환경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교환 및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1)'녹색 요청: 리더십, 혁신, 테크놀로지', (2)'녹색 이코노미 건설: 변화하는 지구를 위한 정책', (3)'자원의 효율성과 비즈니스의 녹색 변환', (4)'혁신과 과학기술투자를 통한 환경문제해결', (5)'사고방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녹색안건을 발전시키는 소비자' 등 다섯 가지 세부주제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한승수 총리와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각각 (2) 주제와 (4)번 세션의 연사로 참가합니다.

둘째 날인 4월 23일 회담 주제는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경영모델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환경 리더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문지식 및 기술전달', '금융과 투자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방안',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채굴산업의 역할', '수자원 위기에 대한 도전: 비즈니스와 산업을 위한 혁신적 대안' 입니다. 회담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는 '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라는 주제로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를 잇는 실시간 화상통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국 상원의원, 아놀드 슈왈츠체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명망 있는 정·재계 인사가 참여합니다. 유엔글로벌 콤팩트 게오르그 켈 대표 등의 연설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4esummit.com](http://www.b4esummi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 23 April 2009  
Palais des Congres  
Paris, France



### 5. 기후변화에 관한 CEO 정상회의

일	시: 5월 24-26일
장	소: 덴마크 코펜하겐 벨라(Bella) 컨퍼런스 센터
주	제: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5)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의견 결집
주	최: 코펜하겐 기후 위원회
후	원: Novo Nordisk, Novozymes, SAS, Climate Consortium Denmark, Alstom
참	석: 기후 위원회로부터 초대받은 기업의 정상급 CEO 및 고위급 임원, 세계 정상급의 과학자, 경제학자, 언론사 관계자. 그 이외에는 별도 등록.

현 인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코펜하겐에서는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 정상급의 과학자, 경제학자, 언론 매체 등이 모여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 해결을 논의 합니다. 본 회의는 크게 (1)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이중의 위기에 대처하기 (2) 혁신적인 해결책: 기술, 금융, 경감, 적응 (3) 비즈니스 행동과 기후, 그리고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라는 세 가지 주제 하에 진행될 것이며 앨 고어 노벨상 수상자 등 명망 있는 연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회의결과는 6개월 후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15)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제안서 형태로 전달 될 것입니다. 기후협약에 관해 기업의 의견을 결집하는 국제회의에 회원사 분들의 큰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Building a vision

회담 첫 날인 5월 25일에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남은 행사 기간 동안 어떤 이슈를 중점적으로 토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 Working through the critical issues

회담 둘째 날인 5월 26일에는 2012년 이후 적용될 포스트 교토 체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련된 워킹 세션은 회의 참가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적인(How to solve) 프레임워크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비즈니스 전략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접근방식을 선별해 낼 것입니다.

#### Putting forward recommendations

회담 셋째 날에는 각 워킹 세션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둘째 날 워킹 세션에서 제시된 비즈니스 전략과 정부 정책들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어떤 제안과 행동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할 것이며 최종 결정된 사안은 덴마크 정부에 제출 됩니다. 이 제안서가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Key Issues on the Agenda>

경감(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technology)	금융(finan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시장</li> <li>에너지효율성</li> <li>숲</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드맵</li> <li>메커니즘에 대한 금융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드맵과 유인동기</li> <li>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이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정에너지 투자</li> </ul>



## 6.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시아지역회의의 참가 결과

일	시: 1월 20-21일
장	소: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방콕 회의장
주	제: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의 운영상의 전략 토의 및 학습 사항 교환
주	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참	석: 회담 주최측 관계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네트워크 대표단

**내 용:** 경영학의 변화 이론을 도입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네트워크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지역네트워크의 이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필요 조건과 인센티브 촉진 여건에 대한 학습이 있었음. 인도 지역네트워크의 경우 2015년까지 1000개 대기업과 2000개 중소기업, 톱 100개 경영대학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는 전략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음. 또한,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은 월 1회 회원사 순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 전략협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 아태 지역 공동 웹사이트를 추가로 개발하고, 상(Award)을 제정하는 한편,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 간 협력 방안이 모색되었음.

## 7. 기후 게임 변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과 해결 방안 심포지움 참가 결과

일	시: 1월 22일
장	소: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방콕 회의장
주	제: 기후변화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와 위험,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주	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스웨덴 정부
참	석: 민간, 정부, 시민사회, 국제 기구의 대표 300 여명 참가.

### 주요내용

#### 임원 패널 토의 (1) 신 시장의 개척자 (Pioneers of the New Market)

**참가자:** 정래권 한국 기후변화 대사, 제임스 기포드(James Gifford) PRI 사무총장, 페랄타(Peralta) 아태 개발금융기관협회 사무총장, HSBC AU 지속가능담당자, 사모아 환경장관 등

외교통상부의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는, 12월 코펜하겐 협상에서 결정될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는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 제임스 기포드 PRI 사무총장은 450 여 기업이 PRI에 서명하였으며, 주주교환 어음교환소 (Shareholder investment clearing house) 제도를 도입 운용 중임을 밝힘. 테레사 오(Teresa Au) HSBC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상당부분(43%)이 기후변화문제를 금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음을 지적. 기후변화 대응은 커다란 사업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고 금융기관들도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함. HSBC 호주지역 관계자는 자사가 가장 먼저 Carbon Print 를 도입한 결과 종이 사용부문에서 400만불(58억)의 절약 성과를 기할 수 있었음을 보고함.

#### CEO 패널 토의 (2) 기후행동과 관련된 사업기회 (Business Opportunities for Climate Action)

**참가자:** 로한 파리크(Rohan Parikh) 그린 이니셔티브 책임자, 리처드 윌포드(Richard Wilford) CSR Asia 사장, 마이클 브자호브 (Michael Bjarhov) 에릭손(Ericsson)사 대표 등

파리크 그린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대응 투자의 사업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은 IT와 접목할 때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지적함. 이에 반해, 윌포드 CSR Asia 사장은 IT시장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은 위험하며, 농업부문 등 지역 사회가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패널 참석자들은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질의에 따라, 그린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비층에 포함되지 않은 40억 인구를 빈곤에서 탈피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함.

## 분과 별 토의

### A. 미래적 도시의 구현 (Creating cities for the future)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고, 재난을 당한 뒤에도 쉽게 복구될 수 있는 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공공 부문의 협력 방법, 관련 제도구축, 탄소 금융(carbon financing) 활용, 물 부족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됨.

### B. 식량안보 확보 (Ensuring food security)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식량 안보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함. 아시아 개발은행 부총재는 저탄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농업방식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FAO 지역정책 과장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내 대화 촉진할 것을 제시함.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대표는 식량 생산의 80%가 소규모 영농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며, 기술혁명을 통한 혁신보다는 비료개발, 관개 시스템 개선 등 소규모 관개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C. 기후변화와 재앙의 위험 관리(Managing risks from climate change and disaster)

환경체제 악화, 경제적 손실, 보험 부문의 대응 등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처하는 기업과 정부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평가

평소 동남아 지역 개발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이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공동 주최한 의미 있는 행사였음. 아시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다룬 포럼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낌.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CEO 정상회의 (World Business Summit on Climate Change, 5월 24일- 26일)와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15,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12월 7일-18일)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수립하는 데 소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8.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인권특사의 아시아지역협의회 참가 결과

**일 시:** 2월 5-6일  
**장 소:** 인도 뉴델리 타지마할 호텔  
**주 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안할 '기업과 인권' 정책 프레임워크 토의  
**주 최:** 유엔사무총장 인권특사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 대학 교수  
**참 석:** 주관 인사, 유엔인권고등판무실 관계자, 인도 측 공동주최기관(Partners in Change), 아시아 태평양 19개국 인사, 한국 대표로는 주철기 사무총장과 인권위 관계자, 광노형 교수 등 5인 참가.

## 내 용

유엔사무총장 특사 존 러기(John Ruggie) 교수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안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아시아 태평양 대표들과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본 회의를 주최 하였음. 러기 교수가 제안한 프레임 워크는 "보호, 존경, 구제"라는 3가지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음. 국가가 국민을 인권침해로부터 보다 보호할 의무,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 더욱 효과적인 구제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짐. 회의 결과, 투자보장협정에 인권조항 포함 등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기업이 인권 존중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보다 구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 언급됨. 구제방안으로는 타국 법정에의 기업인권침해 제소 방안 등이 협의됨.

한편, 주철기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플랫폼 활동의 중요성은 최근 환경과 반부패를 중심으로 제고 되고 있으나, 이것이 노동권과 인권 이슈의 퇴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 구제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주철기 사무총장은 투자보장협정에 인권보호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함. 회의가 끝난 후에는 인도 글로벌콤팩트 소사이어티의 초청을 받아 인도 전경련(FIKKI)에서 존 러기 교수 등과 만찬을 함께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음.

## 9. 국내동향

### 3월11-12일 사회적 기업 국제공동 컨퍼런스

KDI와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KAIST가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 국제 컨퍼런스' (2009년 3월 11-12일)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 총장이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기업의 영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인과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국내외 성공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5월 5-8일 세계시민포럼 2009

경희대학교와 UN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은 유엔글로벌 콤팩트가 국제파트너로 참여하는 가운데 2009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COEX에서 "세계시민 포럼(World Civic Forum) 2009"를 공동 주최함.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업이 '인도주의적 지구촌 (Building Our Humanitarian Planet)'이라는 주제로 세계적 현안에 대해 논의함.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경영교육원칙(PRME) 별도 토의를 가질 예정에 있음.

## 10. 세계동향

### 방글라데시, 로컬네트워크 출범

(2009년 1월 26일 Dhaka) 방글라데시에서 로컬네트워크 출범함. 출범식에는 41개 방글라데시 로컬네트워크 회원사를 포함하여, 기업, 정부, 시민사회 150곳과 인도 등 인근 국가 네트워크도 축하 참석함. 유엔글로벌콤팩트 로컬네트워크 담당 Soren Peterson은 방글라데시가 기후변화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글로벌콤팩트의 "Caring for Climate" 이니셔티브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함.

### 새로운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투자를 실행하길 촉구

(2009년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 국제금융연합(IFC), 유엔글로벌콤팩트, 스위스 정부가 공동으로 펴낸 새 보고서는, 금융 분야가 투자 과정에서 환경 이슈를 고려할 필요성을 이해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제적 기준으로 삼고있지는 않다고 말함. IFC의 부회장 Rachel Kyte는, 현 금융위기에 기업들이 환경, 사회 이슈를 미룰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시급한 때라고 언급함. 글로벌콤팩트 게오르그 켈은 투자자와 기업이 긴 안목으로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 ESG 이슈를 투자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스페인 네트워크 방문

(2009년 1월 28일, 마드리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스페인 로컬네트워크를 방문하여 출범 50주년을 기념함.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들을 강조하였음. 스페인 네트워크는 600여 개 회원사로 가장 큰 규모임. 사무총장은, 시장에서 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2009년이 "기후변화의 해"임을 강조하며 글로벌콤팩트의 "Caring for Climate"에 스페인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함.

### 글로벌콤팩트 보고서, 기업이 우선 취해야 할 행동의 개요를 잡음

(2009년 1월 29일 뉴욕) 글로벌콤팩트 사무국은 지난 World Economic Forum에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을 포함한 보고서 "Global Sustainability in the 21th Century: An Action Plan for Business"를 발간. 오늘날 경기 침체와 기후 변화 등 전지구적 위기에, 장기적 안목 및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이슈와 관련된, 설득력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기후변화와 지구적 과제에 기업들이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

(2008년 1월 29일 다보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09년을 "다층적 위기의 해(the year of multiple crises)"로 부르며, 기후변화가 우리의 발전을 위협하지만 또한 기회라고 함. 올해 코펜하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논의에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권장함. 기업들이 투명성을 견지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

## 11. 신규 가입사 및 회원활동 동정

2월 24일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한국 회원사는 모두 149개입니다. 2월 11일에 국제뇌교육 협회가 신규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구미시청**은 구미국가산업 4단지에 청정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함. '그린카' 시범도시 추진,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홈'시범지역 설정 및 지난 10월 전국 처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출범 등 친환경산업도시의 입지 구축에 나서고 있음. 구미시청은 작년 4월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및 한국협회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신한은행**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해 발전소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기업대출상품 '신한솔라파워론'을 출시한다고 밝힘.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를 얻어 한국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대출대상이며 대출기간이 최장 15년 이내임. 신한은행,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모두 글로벌콤팩트 가입 회원사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환경부와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0%까지 줄이겠다고 밝힘. 2월부터 자체브랜드(PB) 상품 20-30개에 '탄소라벨(상품 제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낸 것)'을 붙여 소비자에게 친환경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활동 등을 펼친다는 계획을 발표.

**한국공항공사**는 2월 10일 전국 14개 공항의 에너지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공항 비전선포식'을 가짐. 향후 5년간 친환경 기술개발과 탄소저감시설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2300여억원을 투자해 전국 14개 공항을 친환경 그린 에어포트로 만들겠다고 밝힘.

**SK에너지**가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시키는 등 '녹색경영'에 적극 나섬. 2월 12일 '저탄소 녹색성장 스템 네트워크 협력사업 준공식'을 가짐.

## 12. COP 제출현황

COP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중부발전 대한주택공사 문화방송 인천국제공항공사

COP 제출기한이 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은행 한국서부발전 대우증권 웅진코웨이 한국투명성기구 롯데쇼핑 환경재단 한국도로공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철도시설공단

COP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0일 미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케이티프리텔 한국수력원자력

**60일 미만:** 풀무원 한전KDN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가스공사 한국인권재단 대한주택보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주택보증

**90일 미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원건설 한국조폐공사 유유제약 한국철도공사 청원건설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 13. 회원비 납부 현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의 연회비로 운영됩니다. 현재 회원사 연회비 납부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회비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09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회원사가 회비를 납부해주셨습니다.

대한항공 고려대경영대학/대학원 아모레퍼시픽 풀무원 에코프론티어 청원건설  
삼성KPMG 유니베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라이콤 대한지적공사 SK에너지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 문화방송 금호건설 유한킴벌리

회원사의 관련 활동사항을 알려주시면 뉴스레터에 반영하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5가 24번지 파크타워 103동 1705호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 HP: www.unglobalcompact.kr